

설 곳 없어진 공채 개그맨들... '유튜브'의 바다로

방송 환경 악화로 고사 위기에 처했던 개그맨들에게 '유튜브'가 새로운 직장으로 자리 잡았다.

공채 개그맨들의 삶이 타던 공채 코미디 프로그램들을 공중파 방송사들이 폐지하면서 사실상 실직 상태에 접어든 게 이런 변화를 불러온 가장 큰 이유다.

인기를 스스로 깎아 먹었다는 비판 속에 명맥을 유지하던 KBS 2TV '개그콘서트'마저 종영한다. 예능 프로그램 '개그맨 뭉' 고정 출연 자리가 매우 한정된 상황은 자연스럽게 개그맨들을 유튜브로 내몰았다.

유튜브의 자유로운 제작 환경은 태생적으로 자유분방한 개그맨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한 대안 플랫폼이기도 했다. 넘치는 아이디어와 기획력을 바탕으로 제작진 간섭이나 분량 제약 없는 방송물 제작에서 개그맨들은 감정을 보이기 시작했다. 콘텐츠 유형은 '몰래카메라' 형식이 주를 이루 가운데 다양하게 발전 중이다.

먼저 자체 콘텐츠를 선보이는 개그맨 중에서는 손민수와 임라라의 '엔조이커플'이 181만명 구독자를 확보,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다.

6년째 열애 중인 두 사람은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으며, 유튜브를 통해서 브이로그와 커플 상황극을 주로 선보인다.

SBS 공채 개그맨인 안진호, 최부기, 정재형이 문진 '동네놈들' 채널도 115만명을 끌어들이었다. 대부분 콘텐츠가 서로를 속고 속이는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예상치 못한 웃음을 준다.

SBS 출신 김승진, 유룡, 이재훈으로 구성된 3인조 개그전문 채널 '배꼽빌라'도 91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모았으며, KBS 출신 장윤석과 tvN '코미디 빅리그'로 데뷔한 임종혁의 몰래카메라 '킬질상화'도 83만명을 훌쩍 넘겼다.

이밖에 KBS 출신 조충현이 성대모사를 하면서 게임 룰(리그 오브 레전드)을 하는 '조충현' (42만명), 무명 개그맨 박상현의 '상현아 웃겨줘' (48만명), KBS 출신 방주호와 정승빈의 '개방장' (46만명) 등도 호응을 얻고 있다.

예능 고정보다 쓸쓸할 때도

유튜브 인기로 거꾸로 TV 진출도

손민수·임라라 커플 등 맹활약

방송에서 하던 프로그램의 연장선으로 유튜브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SBS TV '웃찾사' 속 '흔한남매' 코너의 연장선인 '흔한남매'는 장다운과 한은뜰이 남매의 일상 에피소드를 코믹하게 풀어내 무려 205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했다. '웃찾사' 속 '레전드 매치-문과이과'에서 따온 김성기-신홍재의 '1등 미디어', '개그콘서트' 속 '박준형의 생활사투리'를 연장한 김시덕-이재훈의 '사투리TV' 등도 비슷한 포맷이다.

인기 개그맨들의 유튜브 활동도 최근 더 활발해졌다.

양세형의 '양세브라더스' (51만명), 이수근의 '이수근 채널' (45만명), 김준호의 '얼간 김준호' (43만명), 이상준의 '주간 이상준' (43만명), 흥운화-김민기의 '공냥공냥' (42만명), 이국주의 '이국주' (39만명), 이상훈의 '이상훈TV' (33만명) 등이 개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16일 "무대 개그는 아무리 개그를 잘 짜도 누군가 그걸 보고 선정해줘야 하는 과정이 있지만, 유튜브는 대중과 바로 소통할 수 있다. 팬층은 캐릭터와 공감 가는 코드만 있으면 주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상 속 웃음을 많이 추구하다 보니 개그맨들도 그런 형식을 찾아간다. 물론 몰래카메라 등 포맷이 지나치게 자극적일 수 있는 문제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에는 유튜브에서 자주 회자되면서 잠시 주춤했던 TV 활동을 재개하는 스타의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엔조이커플' 손민수·임라라 등이 그렇고, 개그맨은 아니지만 '방가네'로 활동 중인 남매 스타 고은아-미르, '드림작' 빅터한도 대표적인 경우다.



이수근 채널



손민수·임라라의 '엔조이커플'

/연합뉴스

'초통령' 뽀로로 과테말라서도 인기

어린이 10명 중 5명 시청



'초통령' (사진·초등학교생들의 대통령)으로 불린 국내 인기 애니메이션 '뽀로로'가 과테말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리랑TV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과테말라 공영방송사인 과테비시온에 배급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방영한 '뽀로로'가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 최근 소개했다.

과테말라 TV 데이터 조사 기관인 이보페(Ibope)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월부터 7월까지 과테비시온의 '뽀로로' 방영 시간대 누적 시청자 수는 약 181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과테말라 총인구(약 1700만명) 중 0-9세 어린이 인구가 약 330만 명임을 고려하면 10명 중 5명이 뽀로로를 본 것이라고 아리랑TV는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주재 한국 대사관은 과테말라에서 곧 뽀로로를 재방송할 예정이며 신규 애니메이션도 추가할 예정이다.

아리랑TV는 지난해부터 문체부와 함께 해외 방송사에 한국 애니메이션을 배급하는 해외방영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중남미·아프리카·중동·독립국가연합 등 80여개 국가에 배급했다.

/연합뉴스

블랙핑크, 에미넘도 넘었다

유튜브 구독자 4400만명 세계 4위 가수

그들 블랙핑크가 세계에서 유튜브 구독자 수가 네 번째로 많은 아티스트가 됐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16일 오전 9시경 4400만 명을 돌파해 에미넘을 넘어 전 세계 아티스트 4위로 올라섰다고 17일 밝혔다.

저스틴 비버, DJ 마시멜로, 에드 시런 다음으로 구독자가 많아졌으며, 여성 아티스트 중에서는 세계 1위다.

블랙핑크는 지난달 24일 아리아나 그란데를 넘어 유튜브 구독자 순위 5위로 올라섰다. 이후 구독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한계단 상승한 것이다. 블랙핑크 유튜브 구독자 수는 지난 6월 26일 신곡 '하우 유 라이크 댓' (How You Like That)을 공개한 이후 하루에 평균 10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BLACKPINK

구독자 4400만명

구독

소속사는 유튜브 구독자가 해외 인기와 인지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라며 "블랙핑크의 글로벌 영향력과 대중적 저변이 넓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블랙핑크는 오는 28일 팝스타 셀레나 고메즈와 협업곡을 선보이고 10월 2일에는 첫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연합뉴스

350만명 동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손익분기점 돌파

이정재와 황정민의 추격 액션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가 2주 연속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개봉 12일 만에 손익분기점을 돌파했다.

17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지난 주말 사흘(14~16일) 동안 84만1000여명의 관객을 끌어모으며 손익분기점 350만명을 돌파해 누적 관객 수 354만3000여명을 기록했다.

올여름 '빅3' 영화 중 가장 늦게 개봉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가 가장 먼저 개봉한 '반도' (377만9000여명)를 바짝 추격하며 흥행 1위를 노리는 모양새다.

오는 19일 개봉 예정이었던 과도권 주연의 코미디 영화 '국제수사'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개봉 일정을 연기하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가 '네트' 개봉 전까지 관객을 더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재와 황정민의 추격 액션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가 2주 연속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개봉 12일 만에 손익분기점을 돌파했다.

/연합뉴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메뉴 포장및배달가능
직접전화및배달앱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유)신 화 로 프
본점: 나주시 청동길 244
PP로프, 안전로프, 형광로프, PE로프,
비닐, 천막, 안전장 전국최저가도·소매
☎ 061)335-2301~2, 010-3429-6400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어주민물장어탕
전남 무안군 삼향읍남약4로82번지길4-7
민물장어탕·민물장어구이
포장가능합니다
☎ 061)285-1255, 010-8620-8171

사랑방공인중개사사무소
북구 운암동 미라보3차@상가동 3호
아파트, 빌라, 주택, 상가, 토지, 임야매매·전월세
각종부동산 매매 상담 신용분위
☎ 062)574-8924, 010-9332-8184

석 당 화 랑
동구 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유품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고 전 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미가한우명가
나주시 풍물시장2길 54(영산포버스터미널뒷편)
생고기, 생고기비빔밥, 떡갈비정식
☎ 061)333-0505, 010-4390-3366

비 비 가
동구 대인동 영무파라드2차 1층
"완벽한한그릇 비빔밥"
비빔밥 & 해산물
비빔밥만족(중·대·소)비빔밥, 돌솥비빔밥, 연어조림, 회덮밥
☎ 062)229-1008, 010-8572-0999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북구 북문대로 35(운암동)
상가·아파트·주택·토지·각종부동산매매상담
고객만족! 책임중개!
☎ 062)225-3303, 010-2651-6409

한성꽃화원
나주시 나주로71(송월동 LG화학앞)
근조·축하화환, 동·서양관, 관엽전국배달
☎ 061)334-3200, 010-3623-6921

초 대 화 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장 어 수 산
북구 서암대로 88(신안다리앞)
무항생제 장어사육
포장배달·전국택배배송, 선물포장드립니다.
신용분위
☎ 062)412-1961, 010-5828-1961

우리식당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장부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마루전통한방차전문점
나주시 영산포로184-1(영산포우체국앞)
심전대방탕, 생화탕, 대추탕, 오미자차, 생강차
각종과일주스, 구워낸 가래떡과 초창을 드립니다
☎ 061)333-6567, 010-7200-6567

만 복 당
동구 제봉로 184번길 5-9 (대인시장내)
골동품, 석물, 도자기, 민속품, 고가구
미술품 매도·매입합니다.
찾는 물품을 찾아드립니다.
☎ 062)959-0680, 010-4602-0680

박 당 화 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